

32-33장.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말을 마쳤지만, 그 대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엘리후의 발언은 32-37장까지 총 여섯 장에 걸쳐 네 차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욥이 세 친구의 말에 설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엘리후를 욥의 세 친구와 같은 편에 두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엘리후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엘리바스는 처음에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5:17-18), 엘리후는 이 주제를 더 길게 다룬다(33:16-28; 36:8-11, 15).

엘리후의 독백을 욥기의 맥락에서 보면 기이한 점이 있다. 그의 발언은 욥의 세 친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나아가는 면이 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지만, 엘리후는 회복되는 사람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후의 발언을 무시하신다는 점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다른 시각에서,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침묵하신 것은 그의 말이 38-42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위한 준비로 보기도 한다. 이것은 32-37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욥기를 읽어갈 필요가 있다.

1. 엘리후의 등장 (32:1-5)

개역	사역
1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기므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1 이 세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다. 그것은 욥이 스스로 옳게 여겼기 때문이다.
2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발함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2 그러자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이다.
3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발함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3 그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고 욥을 ⁸⁰⁾ 정죄하기만 하였기 때문이었다.
4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4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에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발하니라.	5 세 사람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⁸¹⁾ 엘리후는 화를 냈다.

31장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에 대한 평가로 시작한다. 세 친구가 욥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자 그들에게 화를 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이 스스로를 옳게 여겼다고 밝히는데, 이것이 엘리후의 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게 한다. 그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욥을 정죄하려 할 것이다.

엘리후는 람 족속이고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람 족속은 유다 지파와 연결

80) 히브리어 성경에 18회 나오는 ‘서기관’의 정정(키투네 소페림)에 속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죄하였음이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을 ‘욥’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정죄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함으로써 욥에게 승리를 안겨 준 것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틀리다는 말을 한 셈이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81) 원문은 “세 사람의 입에 대답할 말이 없음을 보고.”

되는 것처럼 보인다(대상 2:9). 부스 지역은 욥의 고향 우스와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창 22:21), 북 아라비아 지역일 수도 있다(렘 25:23).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은 낯선 이방 이름이지만,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친숙한 이름이다.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욥도 세 친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2. 엘리후의 자기 소개 (32:6-10)

개역	사역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저는 연소하고 여러분은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제 소견을 어르신들께 ⁸²⁾ 밝히기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7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7 “나이가 ⁸³⁾ 말하게 하고 연륜이 지혜를 가르치게 하자”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8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나니	8 그러나 깨우침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입김입니다.
9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9 연로하다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노인이라고 바른 판단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10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엘리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 지혜를 주는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다. 6-10절은 아래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6-7절. 나이와 연륜이 가르친다.

8절.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입김이 지혜를 가르친다.

9-10절. 나이와 연륜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엘리후는 연장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이가 지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나이와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입김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영과 입김을 성신으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입김을 코에 불어넣으신 것과 대비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엘리후는 지혜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입김에서, 즉 창조된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뗀 후에 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밝힌다.

3. 엘리후의 인내와 발언 (32:11-16)

개역	사역
11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11 보십시오. 저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을 찾는 동안 어르신들의 통찰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82) 원문은 “여러분들에게”

83) ‘나이’와 ‘연륜’은 히브리어로는 ‘날들’과 ‘많은 해들’이다.

84) 직역하면 “말이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p>12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p> <p>13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지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p> <p>14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p> <p>15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p> <p>16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p>	<p>12 제가 어르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나 아무도 욥을 논박하지 못하였고 욥의 말에 응수하는 분도 없었습니다.</p> <p>13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실 것이다.”</p> <p>14 욥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에 저는 어르신들의 말로 그에게 답변하지는 않겠습니다.</p> <p>15 그들이 당황하여서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니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습니다.⁸⁴⁾</p> <p>16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이고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p>
-------------------------------------------------------------------------------------------------------------------------------------------------------------------------------------------------------------------------------------------------------------------------------------	-----------------------------------------------------------------------------------------------------------------------------------------------------------------------------------------------------------------------------------------------------------------------------------------------------------------------------------------------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욥을 논박하지도 못하고 대답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겠다고 한다. 그는 세 친구의 말로 대답하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겠다고 한다(32:14).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대답하는지를 살펴면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

4. 엘리후의 속마음 (32:17-22)

개역	사역
17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17 이제 저도 제 몫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저도 제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18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18 왜냐하면 저에게는 할 말이 가득하고 저의 속에 있는 영이 저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19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될 같구나.	19 저의 속은 밀봉된 포도주와 같고 터질 것 같은 새포도주 부대와 같습니다.
20 내가 말을 말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0 속이 후련하도록 말을 하렵니다. 제 입술을 열어서 대답하렵니다.
21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21 저는 어떤 사람의 편도 들지 않고 ⁸⁵⁾ 어떤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렵니다.
22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22 저는 아첨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저를 지으신 분이 재빨리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엘리후는 제 몫으로 대답하고 자기 소견을 밝히겠다고 한다(32:17). 욥의 세 친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한 셈인데, 이 구절은 엘리후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엘리후가 그의 주장처럼 욥의 세 친구가 인과응보의 논리를 전개한 것과 크게 다른 데로 나아갔는지의 여부는 이후의 내용에서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엘리후는 처음에 지혜가 나이에 있지 않고 사람 속에 있다고 하였는데(32:8), 이제 자기 속에 할 말이 가득하고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말을 하도록 압박을 넣기 때문에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마치 밀봉된 새 포도주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겠다고 하였다.

엘리후는 자기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였

85) 직역하면 “사람의 얼굴을 높이 지 않겠습니다.”

다. 마치 두 편의 중재자나 재판장을 자임하는 듯하다.

5. 엘리후는 하나님의 신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욥의 주장을 요약함 (33:1-13)

엘리후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33:4) 하고 말한다. 그는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의 신에게 두고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나 나도 흠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33:6) 하면서 겸손히 말을 이어간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욥은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고 말하고 둘째, 불의가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치시고 감시한다고 말하였다고 요약한다. 이러한 요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데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6. 교육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여호와 (33:14-30)

엘리후는 여호와께서 거듭 말씀하시되, 사람이 즐거나 깊이 잠들어서 수동적이 되었을 때에 귀를 여시고 교훈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으심으로써 사람의 영혼이 구렁이에 빠지지 않고 칼에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33:1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려 주신다(33:19).

만일 천사 중의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가 정당히 행한 것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구렁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대속물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22:23-24). 그러면 그 사람은 회복되고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33:27) 하고 회개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실을 깨우치시려고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신다고 엘리후는 말하였다(33:30).

7. 욥에 대한 권고 (33:31-33)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가 의롭게 될 것이라고 권한다. 자기의 말이 그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